

2015 서울시 7급 기출문제해설_경제학

1. ②

회계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으므로 회계적 이윤 = 총수입(30만원) - 명시적 비용(15만원) = 15만원이다.

경제적 이윤은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차감하여 구해야 한다. 10시간 파종을 하게 되면 골프 레슨으로 벌 수 있었던 30만원을 포기해야 하므로 암묵적 비용은 30만원이다. 따라서 경제적 이윤은 15만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경제적 이윤 = 총수입(30만원) - 명시적 비용(15만원) - 암묵적 비용(30만원) = -15만원

2. ③

수요곡선의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rightarrow P \times Q^d = 21$

해당 식에 따르면 수요곡선은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3. ①

①, ② 효용극대화는 두 재화의 한계대체율과 상대가격 비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③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므로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④ 두 재화의 가격과 소득이 종전보다 1.5배 수준으로 상승하더라도 예산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4. ①

명목이자율이 10%이고 물가상승률이 5%이므로 실질이자율은 5%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50%이므로 이자소득세율은 5%이며 세후 실질이자율은 5% - 5% = 0%이다.

5. ④

현재 시장가격은 30원이며 개별기업은 이윤을 얻고 있다. 이윤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기업들의 진입이 발생하며 시장공급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개별기업의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까지 시장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시장거래량은 60만이 되고 시장가격은 25원이 된다. 시장가격 25원하에서 개별기업은 400개를 생산하므로 시장기업수는 $\frac{600,000}{400} = 1,500$ 개가 된다.

6. ④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면 총공급곡선이 좌측이동하므로 균형물가가 상승하고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한다. 따라서 실업률은 증가한다.

정부가 총수요 축소 정책을 사용한다면 총수요곡선이 좌측이동하므로 물가는 하락하고 균형국민소득은 더욱 감소하게 된다.

반면 정부가 총수요 확대정책을 사용한다면 총수요곡선이 우측이동하므로 물가는 더욱 상승하고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의 총수요관리정책으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하여 총수요 축소정책을 사용한다면 총수요곡선이 좌측이동하므로 물가는 안정되나 국민소득 감소로 실업률이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7. ②

총수요는 200억달러이고 잠재 GDP는 300억 달러이므로 GDP 갭은 100억 달러이다.

GDP 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지출 승수의 값이 2이므로

$$\left(\frac{1}{1 - \text{한계소비성향}} = \frac{1}{1 - 0.5} = 2\right) \text{ 정부지출을 50억 달러 늘려야 한다.}$$

8. ②

실질 GDP가 5,000이므로 $Y = C + I = 5,000 \rightarrow 5,000 = 500 + 0.6 \times 5,000 + 2,000 - 100r$

$$\rightarrow r = 5\%$$

9. ①

① A국의 경우 X재를 0개에서 1개 생산하므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Y재 6개이며 B국은 10개이다. 따라서 X재를 1개 생산하므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A국이 B국보다 작다.

② A국이 X재를 생산하지 않을 때 Y재의 최대 생산량은 14개이다.

③ B국의 생산가능곡선 영역이 A국의 생산가능곡선의 영역보다 더 크므로 A국과 B국이 동일한 생산요소를 갖고 있다면 B국이 A국보다 생산기술이 더 우수하다.

④ B국의 경우 X재를 1단위 더 생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Y재 10단위에서 16단위로 증가하므로 기회비용은 점점 증가한다.

10. ③

확대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외환이 유출되므로 변동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11. ③

이부가격제도하에서는 독점기업은 사용료는 한계비용만큼 설정하고 고정요금(가입비)는 소비자 잉여만큼 이용자에게 부과한다.

한계비용은 2이므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과 연립하면 균형거래량은 16으로 도출된다.

$$\rightarrow 10 - 0.5Q = 2 \rightarrow Q = 16$$

소비자 잉여는 $\frac{1}{2} \times 16 \times 8 = 64$ 이므로 고정요금(가입비)은 64이다.

12. ①

운전자 B가 '회피'전략을 사용하면 운전자 A는 '직진'전략을 사용하고 운전자 B가 '직진'전략을 사용하면 운전자 A는 '회피'전략을 사용하므로 운전자 A는 우월전략을 갖고 있지 않

다.

내쉬균형은 2개가 존재한다. (회피, 직진), (직진, 회피)

13. ②

- ① 수요곡선은 수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 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므로 물품세 부과로 공급곡선이 좌측이동하더라도 균형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 ③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물품세 만큼 상승한다.
- ④ 공급자가 물품세를 납부하고 실제받는 가격은 변함이 없다.
- ② 공급자의 수취가격과 거래량은 변함이 없으므로 생산자 잉여는 변함이 없다.

14. ④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공급된다.

15. ②

$$2011년 \text{ GDP 디플레이터} : \frac{24 \times 100 + 1200 \times 4}{20 \times 100 + 1,000 \times 4} \times 100 = 120$$

$$2012년 \text{ GDP 디플레이터} : \frac{30 \times 200 + 1500 \times 4}{20 \times 200 + 1,000 \times 4} \times 100 = 150$$

16. ②

- ①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LM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므로 통화정책의 효과는 작아지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 ②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이 클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므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작아지고 금융정책의 효과는 커진다.
- ③ 임금조정의 신축성이 클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므로 총수요관리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 ④ 한계소비성향이 작을수록 IS곡선의 기울기가 커지므로 재정정책의 효과는 커지고 금융정책의 효과는 작아진다.

17. ④

밀턴 프리드먼의 항상소득가설이 성립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전망적 소비자 이므로 리카도 대등성 정리가 성립한다.

18. ①

$$1인당 \text{ 자본량}(k=\frac{K}{L})은 4이고 1인당 \text{ 생산함수}는 \frac{Y}{L}=\frac{K^{\frac{1}{2}}L^{\frac{1}{2}}}{L}=\frac{K^{\frac{1}{2}}}{L^{\frac{1}{2}}}=(\frac{K}{L})^{\frac{1}{2}} \rightarrow$$

$$y=k^{\frac{1}{2}} \text{이다.}$$

1인당 생산함수는 $y=k^{\frac{1}{2}}$ 이고, 감가상각률(d)은 0.1이므로 균형상태 조건은 $sf(k)=dk \rightarrow 2s=0.4 \rightarrow s=0.2$

따라서 저축률은 20%이다.

19. ③

- ① GDP갭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오쿤의 법칙’이라 한다.
- ② 피셔효과란 예상인플레이션율과 명목이자율과의 1 : 1관계를 나타낸다.
- ④ 구매력평가설이란 각국의 물가에 따른 구매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20. ②

	X재	Y재
A국	10	60
B국	15	100

	X재	Y재
A국	Y재 1/6	X재 6
B국	Y재 3/20	X재 20/3

A국은 B국에 비해 Y재에 비교우위가 있고 B국은 A국에 비해 X재에 비교우위가 있다.